



일손 없는 농촌, '불법체류자'도 귀한 대접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줄인다

코로나 여파 무더기 출국... 제주 농업현장 인력난 농민 A씨 "내국인만은 농사짓기 사실상 불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중심으로 '구인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읍지역에서 무 농사를 짓는 A(55)씨는 수확 시기인 지난 겨울 내내 적잖은 마을 고생을 해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를 떠나는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수확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것이다.

A씨는 "1년 농사에 들어가는 일손 중 80% 이상이 수확 시기에 투입되는데, 이 때 불법체류자를 많이 고용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이 중단되고 도내 불법체류자도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지난 겨울에는 극심한 구인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겨우 불법체류자를 구해놔도 다른 농가에서 웃돈을 제시해 이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당해봤

다"며 "과거에는 싼값에 쓴다고 했지만, 이제 불법체류자 없이는 농사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매해 증가하던 도내 불법체류자의 가파른 상승세는 코로나19로 뚝 끊겼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2016년 7788명, 2019년 1만4732명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2019명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2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의 계절노동을 허가하는 '한시적 허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올해는 다시 운영, 제주에 41가구·96명을 배정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중개 확대 ▷유유인력 활용 ▷인력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일반환자 입원 지연 속출 2개 병원 병상 95개 감축

제주지역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일반 환자의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이 축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을 조정해 총 443개로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3개 병원의 지난 2월 병상 가동률은 평균 6.2%로 매우 낮은 반면, 서귀포의료원 등에서 일반 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 발생

한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은 128병상에서 56개를 감축해 72병상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의료원은 106병상에서 39병상을 줄인 67개로 운영된다. 제주의료원 109병상과 생활치료센터 195병상은 변동이 없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남양대응추진단장은 "병상 부족으로 일반 환자들의 입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라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즉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3개 병원과 협조를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부산→제주 여객선 승객 실종

부산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한 여객선 승객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부산에서 제주로 입항하던 여객선 A호에서 승객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부산항에서 출항해 11일 오전 6시쯤 제주항에 입항했다. 여객선 작업이 객실청소를 하던 도중 가방을 발견했고, 여객선 내 CCTV를 통해 제주항 북동쪽 4.6km 해상에서 승객 B씨가 실종되는 장면을 확인 후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해상 수색작업과 함께 수색팀을 편성해 해안가로 수색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새봄 목욕 받아 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마지막 날인 14일 제주시 애월읍 새봄마을 축제장에서 새봄 맞이 목욕 나눠주기 행사가 비대면 드라이브인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운전 도중 추월 행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 사거리에서 자신의 추월 행위에 대

해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도로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로 한 가운데서 B씨를 때리다 주변 시민들의 만류로 폭행을 멈추고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으나 6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폭행 장면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강민성기자

강보성 전 국회의원 숙환으로 별세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강보성(사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소리 출신으로 호헌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1990년 3월 농림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발인은 16일 오전 8시30분 제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며 장지는 양지공원. 연락처 010-5203-8383.



"아이들 안하던 행동 해... 후유증 심각"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부모, 가해 교사들 엄벌 촉구

아동 13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5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12일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 5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2시간가량 진행된 피해 진술이 끝난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학부모 A씨는 "학생들이 피해 후 유증으로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찧는

다거나 벽에 박는 등 안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폭력이 오랜 기간 존재했던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장과 이사 등을 포함한 경영진과 폭력을 가한 선생님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며 "이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피해로 심리상태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자주 잠에서 깨 울었다. 처음에는 성장통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오랜 기간 학대에 시달렸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나이가 어려 심리치료도 어렵다고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만 3세 이하로 너무 어려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아동 부모들의 진술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 5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3세 이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원장 C씨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아동학대가 수십 차례 이뤄져 주의와 감독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강민성기자

제주항 해상서 변사체 발견

14일 오전 11시50분쯤 제주항 8부두 인근 해상에서 남성 변사체가 보인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파출소 및 구조대는 신고 30여분 뒤인 이날 낮 12시24분쯤 변사체를 인양했다. 변사체는 키 약 168cm에 검은색 잠바와 바지, 신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해경은 신원확인을 위해 부두 주변 CCTV를 조사 중이다. 송은범기자

컨테이너 휴게실 화재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불이 나 1000만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2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가공공장 컨테이너 휴게실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컨테이너 2동이 소실돼 105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2021 히트브랜드 대상 보청기 특가할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로드 마팅 혜택입니다.

H2021 HIT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방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메건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메건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레아몬(레몬), 탐나는봄(한라봉), 사라향(전해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진,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사, 세미늘, 금금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규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과 농촌진흥청 통상시식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